

형지I&C, 3분기 누계 수익성 개선

- ▶ 신상품 판매율 신장 및 유통 구조 개선,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 확대를 통한 이익률 개선
- ▶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한 매출 확대,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신상품 확대할 것

<2021-11-16> 패션기업 형지I&C(011080, 대표이사 최혜원)는 공시를 통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1년 3분기 누계 매출액 451억 원, 영업손실 3억 6,000만 원, 당기순손실 22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5.1% 감소했으나 영업손실은 45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3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신상품 판매율 신장 및 유통 구조 개선,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 확대를 통한 이익률 개선 등으로 영업 이익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아울렛 운영 관련 수익성 개선을 위해 유통망에 맞는 상품을 기획했으며, 남성복 본(BON) 프리미엄 라인 매그넘(MAGNUM)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통해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등 성공적 행보를 이어갔다.

회사의 프리미엄 남성셔츠 브랜드 예작(YEZAC)은 지난 9월 21년 F/W 시즌 트렌드를 리드할 뉴 컨셉 라인 Y-STYLE(와이스타일)라인을 론칭했으며, 10월 Y-STYLE 컨셉스토어를 롯데백화점의 남성 편집샵 '명작소'에 오픈했다.

또 올해 4월 아마존 미국에 입점한 이후 9월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며, 외형확장을 위해 조만간 있을 미국 쇼핑 최대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11/25~29)'를 겨냥해 물량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형지I&C 관계자는 "국내외 패션 부문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와 맞물려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신상품을 확대하고 아마존 미국 매출 증대를 가속화해 전체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